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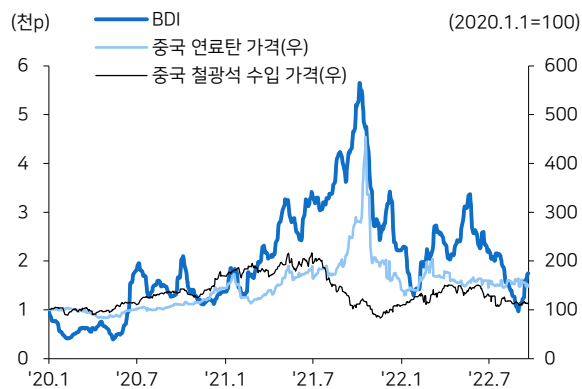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9. 23 (금)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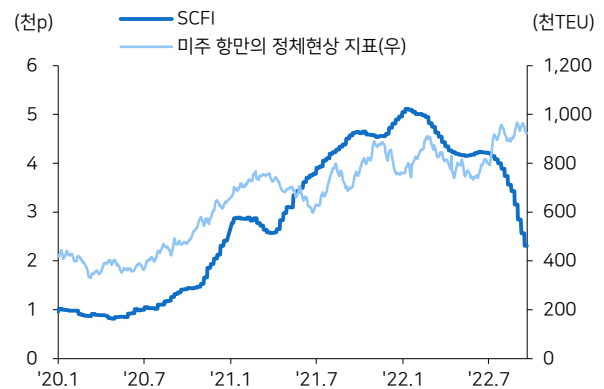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720.0p(-2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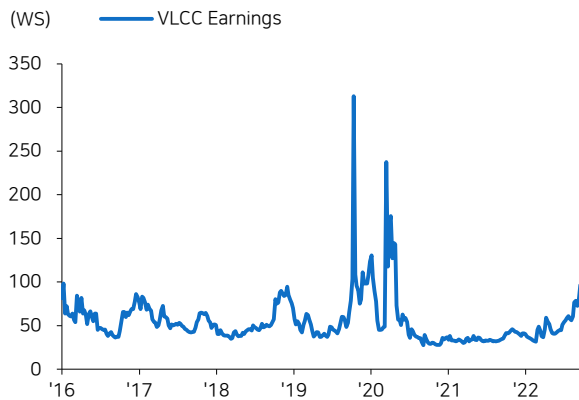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312.7p(-249.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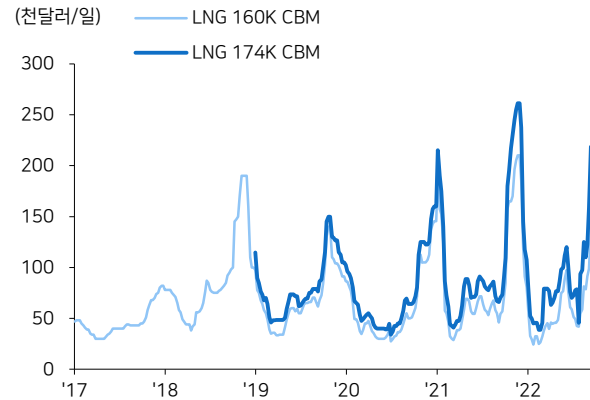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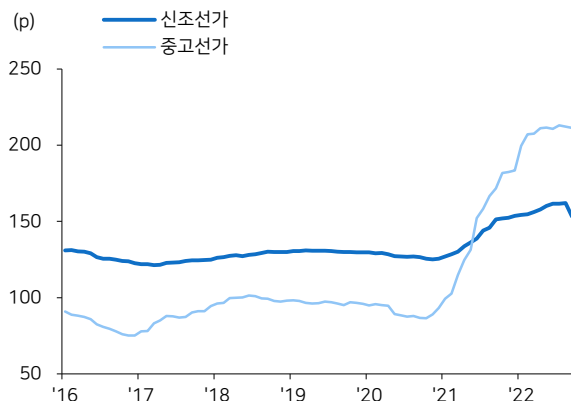
96.9p(+18.1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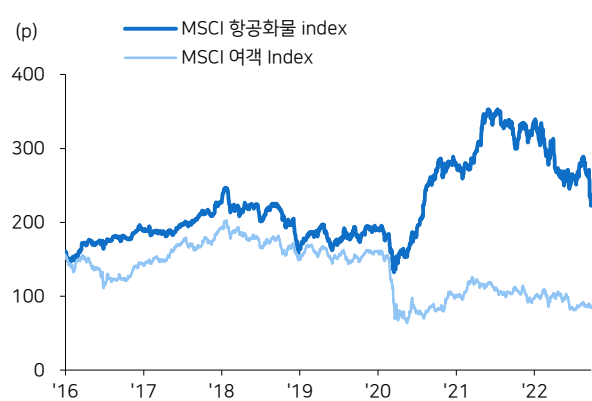
LNG Spot 운임

137.5p(+38.8p WoW)
218.8p(+60.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3.6p(-8.8p WoW)
211.3p(+0.1p WoW)

항공시장 지표

222.4p(-5.3p DoD)
83.8p(-1.2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TMS Cardiff Gas linked to latest QatarEnergy-backed LNG orders at DSME

그리스 TMS Cardiff Gas가 대우조선해양에 발주된 LNG선 2척의 선주로 보도됨. 카타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언급됨. 총 4.24억달러 규모 계약으로 척당 2.12억달러 수준임. 2026년 3분기 인도 예정임. (Tradewinds)

기시다 "10월11일, 방역 정책 추가 완화"...무비자·자유여행 재개

일본 기시다 총리가 10월 11일부터 COVID-19 방역을 추가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됨. 하루 5만명 입국 제한 폐지, 비자 면제 복원, 개인 자유여행 재개 등 조치가 시행될 예정임. 일본정부의 방역 추가 완화는 엔화가 달러 대비 24년래 최저치인 것도 영향이 있다고 언급됨. (뉴스1)

홍콩, '제로 코로나' 끝?... "10월 초 3+4 격리 의무 폐지"

홍콩이 10월초부터 COVID-19 격리 의무를 폐지한다고 보도됨. 홍콩은 현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호텔격리 3일, 자택격리 4일을 의무화하고 있음. 지난 20일 홍콩 행정장관도 격리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의 방역 완화계획을 승인했다는 뜻으로 알려짐. (뉴스1)

OceanPal takes reduced rate for capesize fixed to Hyundai Glovis

OceanPal이 낮은 가격에 현대글로벌비스와 대선계약을 맺었다고 보도됨. 177,200DWT급 선박을 6월 2,200만달러에 매입해 인도받은 상황임. 현대글로벌비스와 약 35일간 일일 15,000달러, 5% 수수료를 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언급됨. 항해가 40일이 초과되면 OceanPal이 24시간마다 18,000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알려짐. (Tradewinds)

UK lifts ban on fracking

영국이 셰일가스 개발을 다시 허용한다고 보도됨.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안보 위험에 기인함. 수압파쇄(fracking) 공법은 퇴적 암층의 석유·가스를 빼내기 위해 높은 수압으로 돌을 깨는 채굴작업인데, 지난 2019년 금지된 바 있음. (Upstream)

중국, 석탄 50년, 석유 18년 버틸 물량 보유

블룸버그는 중국이 향후 각각 50년, 18년 사용 가능한 석탄과 석유를 보유하고도 수입에 열중하고 있다고 보도함. 중국 자국 내 석탄 매장량은 280억톤, 석유 매장량은 37억톤, 천연가스는 6.3조CBM으로 알려짐. 그러나 석유, 가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며, 석탄 자급률은 10% 수준임. 신규 석유·가스 탐사에 주력해 2022년 탐사비용도 전년대비 13% 증가함. 중국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했고, 자국 내 소비감소로 러시아산 LNG가 남자, 유럽 등지로 재판매하고 있다고 언급됨. (조선Biz)